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0 주차 (17:6-19)

(2015년 10월 25일 - 2015년 10월 31일)

(제3권 40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0 월 2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7:6~12)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6절)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Εφανέρωσά σου τὸ ὄνομ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그들은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나에게 준 자들입니다 (οὓς ἔδωκάς μο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σοὶ ἦσαν καὶ μοὶ αὐτοὺς ἔδωκάς)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σου τετήρηκαν.)
- (7절) 지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νῦν ἔγνωκαν)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ὅτι πάντα ὅσα δέδωκάς μοι παρὰ σοῦ εἰσιν·)
- (8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ὅτι τὰ ῥήματα ἃ ἔ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καὶ αὐτοὶ ἔλαβον)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깨닫고
(καὶ ἔγνωσαν ἀληθῶς ὅτι παρὰ σοῦ ἐξῆλθον.)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9절)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 요청합니다 (Εγὼ περὶ αὐτῶν ἐρωτῶ.)
세상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ῦ κόσμου ἐρωτῶ)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ὧν δέδωκάς μοι.)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σοὶ εἰσιν.)
- (10절) 나의 것은 모두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καὶ τὰ ἐμὰ πάντα σὰ ἐστὶν καὶ τὰ σὰ ἐμὰ.)
그들에 의해 내가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καὶ δεδόξασμαι ἐν αὐτοῖς.)
- (11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εἰμι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καὶ αὐτοὶ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σίν.)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σέ.)

거룩하신 아버지여 (πάτερ ἅγιε,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τήρη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 결과 우리 처럼 그들도 하나될 것입니다 (ἵνα ὡσιν ἐν καθὼς ἡμεῖς).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ὅτε ἦμην μετ' αὐτῶν)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ἐγὼ ἐτήρου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καὶ ἐφύλαξα).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αὐτῶν ἀπόλετο)
 만약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εἰ μὴ ὁ υἱὸς τῆς ἀπωλείας).
 그 결과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6절은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차배열구조(Chiastic Structure)를 이루고 있습니다.

- A: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Ἐφανέρωσά σου τὸ ὄνομ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B: 그들은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나에게 준 자들입니다 (οὓς ἔδωκάς μο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B: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σοὶ ἦσαν καὶ μοι αὐτοὺς ἔδωκάς)
 A: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σου τετήρηκαν.)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름을 드러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 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일컫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참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이들의 이름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이름들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성격, 속성을 드러내는데 실제로 그들은 각자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장소의 명칭도 그에 담긴 의미대로 특별한 뜻을 지니는 장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장소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없이 마음대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송아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수많은 이적으로 애굽을 심판한 분, 유월절에 자신들의 만아들들을 구원한 분, 홍해를 가르신 분,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을 바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이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금송아지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쉽게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 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에 걸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단지 수단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한 것도,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모두 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과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방법과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만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을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도록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그들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도 그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인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등 성전세를 기반으로 호위호식했던 종교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소외받고 왕따를 당하던 세리와 창녀, 각종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⁴⁶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⁴⁷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⁴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⁴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6-29).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듯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러내어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구원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는 장식품에 불과 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충분히 배부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맛없고 볼품없는 후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이 장님이 아니라 멀쩡히 두 눈 뜨고 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그저 성가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빛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빛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으며 그 진리의 말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맞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말의 의미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6~12)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6절)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Εφανέρωσά σου τὸ ὄνομ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그들은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나에게 준 자들입니다 (οὓς ἔδωκάς μο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σοὶ ἦσαν κάμοι αὐτοὺς ἔδωκάς)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σου τετήρηκαν.)
- (7절) 지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νῦν ἔγνωκαν)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ὅτι πάντα ὅσα δέδωκάς μοι παρὰ σοῦ εἰσιν·)
- (8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ὅτι τὰ ῥήματα ἃ ἔ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καὶ αὐτοὶ ἔλαβον)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깨닫고
(καὶ ἔγνωσαν ἀληθῶς ὅτι παρὰ σοῦ ἐξῆλθον.)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9절)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 요청합니다 (Εγὼ περὶ αὐτῶν ἐρωτῶ.)
세상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ῦ κόσμου ἐρωτῶ)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ὧν δέδωκάς μοι.)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σοὶ εἰσιν.)
- (10절) 나의 것은 모두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καὶ τὰ ἐμὰ πάντα σὰ ἐστίν καὶ τὰ σὰ ἐμὰ.)
그들에 의해 내가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καὶ δεδόξασμαι ἐν αὐτοῖς.)
- (11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εἰμι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καὶ αὐτοὶ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σίν.)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κἀγὼ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거룩하신 아버지여 (πάτερ ἅγιε,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τήρη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 결과 우리 처럼 그들도 하나될 것입니다 (ἵνα ὡσιν ἐν καθὼς ἡμεῖς).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ὅτε ἦμην μετ' αὐτῶν)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ἐγὼ ἐτήρου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καὶ ἐφύλαξα)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αὐτῶν ἀπόλετο)
 만약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εἰ μὴ ὁ υἱὸς τῆς ἀπωλείας)
 그 결과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7~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진실로 깨달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들인 자신에게 모두 주신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깨달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으며,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마태, 누가) 사실만을 기록하거나, 어떤 복음서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니다(마가복음).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잉태 과정에 개입해서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후반 로마 제국 전반을 지배하던 세계관은 신 플라톤 주의 (Neo-Platonism)였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보는 사상으로 이에 따르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인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같은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같은 생각은 2세기와 3세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엄청난 의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이미 요한이 활동하던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이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변증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회의를 품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모든 믿음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번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²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³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1-3).

여기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 토크 로고우 테스 조에스’(περι τοῦ λόγου τῆς ζωῆς)입니다. 로고스를 말씀, 영어로는 Word로 번역하고 있는데 당시에 로고스는 피조 세계를 운행하는 근본 원리, 원천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로고스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나 말씀이 아니라 실존하는 절대자를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생명의 주관자, 절대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로고스, 하나님이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²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³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⁵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⁶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1-6).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인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남자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요한은 이 문제를 이토록 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상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한사람도 예외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예외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대

표해서 희생 제물로 드러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로고스이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대표적인 사례이고 19세기말~20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발흥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표적 인물로는 슈바이처 박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입고 능력을 행하시다가 이 세상에서 일을 완수하신 후에 육신을 받납하셨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둘 모두 잘못된 주장이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골치아픈 내용들은 아예 제쳐두고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되었나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마저 새롭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는 자들을 위한 요청[1]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6~12)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6절)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Εφανέρωσά σου τὸ ὄνομ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그들은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나에게 준 자들입니다 (οὓς ἔδωκάς μο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σοὶ ἦσαν καὶ μοὶ αὐτοὺς ἔδωκάς)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σου τετήρηκαν.)
- (7절) 지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νῦν ἔγνωκαν)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ὅτι πάντα ὅσα δέδοκάς μοι παρὰ σοῦ εἰσιν·)
- (8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ὅτι τὰ ῥήματα ἃ ἔδωκάς μοι δέδοκα αὐτοῖς.)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καὶ αὐτοὶ ἔλαβον)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깨닫고
(καὶ ἔγνωσαν ἀληθῶς ὅτι παρὰ σοῦ ἐξῆλθον.)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9절)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 요청합니다 (Εγὼ περὶ αὐτῶν ἐρωτῶ.)
세상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ῦ κόσμου ἐρωτῶ)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ὧν δέδοκάς μοι.)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σοὶ εἰσιν.)
- (10절) 나의 것은 모두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καὶ τὰ ἐμὰ πάντα σὰ ἐστίν καὶ τὰ σὰ ἐμὰ.)
그들에 의해 내가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καὶ δεδόξασμαι ἐν αὐτοῖς.)
- (11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εἰμι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καὶ αὐτοὶ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σίν.)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σέ.)

거룩하신 아버지여 (πάτερ ἅγιε,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τήρησον αὐτού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 결과 우리 처럼 그들도 하나될 것입니다 (ἵνα ὡσιν ἐν καθὼς ἡμεῖς).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ὅτε ἤμην μετ' αὐτῶν)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ἐγὼ ἐτήρουν αὐτού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καὶ ἐφύλαξα).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αὐτῶν ἀπόλετο)
 만약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εἰ μὴ ὁ υἱὸς τῆς ἀπολείας).
 그 결과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9-1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 나아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고 그들에 의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원어에서 9절과 10절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에로토’(ἐρωτῶ) 인데 ‘에로타오’(ἐρωτάω)의 일인칭 서술형 현재 시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도나 간구를 의미하는 단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무엇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특정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 또는 위탁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며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미리 보면 예수님이 요청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요 17:15).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직접 요청해도 될 일을 굳이 예수님이 이 시점에 제자들을 위해 이러한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적어도 어느 부분까지는 인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말은 맞지만 그래도 무조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냐?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어야지 어떻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 또는 ‘백보 양보해서 인간 모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자구.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해도 인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다면 그만이지!’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리 있어 보이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보내셨으며, 그들을 위해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속죄와 칭의를 완성할 것이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나요? 구원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단지 품나게 보이거나 덤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절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죄박에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수양해 가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되리라고 막연히 믿는 것이지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심각한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피부에 확 와 닿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확신이 들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지금 확신이 없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확실하게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잠못 이루더라도 이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거나 또는 그 동안 계속해서 배운 지식으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

잘 살펴 보면 이 두 부류는 매우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모든 삶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지요.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 장 28 절부터 32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²⁸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²⁹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³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³¹ 그 둘 중에 누

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가 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누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마 21:28-32).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해 언급을 하시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잘 대답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시지 않고 곧바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대제사장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당시 공동체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순종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고, 종교지도자들은 회개도 믿음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의롭게 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 불의함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로 자신이 무력하고 불의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자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는 자들을 위한 요청 [2]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6~12)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6절)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Εφανερώσά σου τὸ ὄνομ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그들은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나에게 준 자들입니다 (οὓς ἔδωκάς μο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σοὶ ἦσαν καὶ μοὶ αὐτοὺς ἔδωκάς)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σου τετήρηκαν.)
- (7절) 지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νῦν ἔγνωκαν)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ὅτι πάντα ὅσα δέδωκάς μοι παρὰ σοῦ εἰσιν·)
- (8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ὅτι τὰ ῥήματα ἃ ἔ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καὶ αὐτοὶ ἔλαβον)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깨닫고
(καὶ ἔγνωσαν ἀληθῶς ὅτι παρὰ σοῦ ἐξῆλθον.)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9절)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 요청합니다 (Εγὼ περὶ αὐτῶν ἐρωτῶ.)
세상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ῦ κόσμου ἐρωτῶ)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ὧν δέδωκάς μοι.)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σοὶ εἰσιν.)
- (10절) 나의 것은 모두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καὶ τὰ ἐμὰ πάντα σὰ ἐστίν καὶ τὰ σὰ ἐμὰ.)
그들에 의해 내가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καὶ δεδόξασμαι ἐν αὐτοῖς.)
- (11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εἰμι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καὶ αὐτοὶ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σίν.)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κἀγὼ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거룩하신 아버지여 (πάτερ ἅγιε,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τήρη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 결과 우리 처럼 그들도 하나될 것입니다 (ἵνα ὣσιν ἐν καθὼς ἡμεῖς).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ὅτε ἤμην μετ' αὐτῶν)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ἐγὼ ἐτήρου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ᾧ δέδωκάς μοι,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καὶ ἐφύλαξα).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αὐτῶν ἀπόλετο)
 만약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εἰ μὴ ὁ υἱὸς τῆς ἀπολείας),
 그 결과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1-1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것이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처럼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한 사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편히 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 구원의 뒷마무리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후 하나님께 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가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히브리서 본문 몇 군데를 찾아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창조주이며, 구속 사역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잠시 입으신 것이지 영원히 피조물 상태로 존재하실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²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³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1-3).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을 살다 간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류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 하나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였고, ‘하나님

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자유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⁹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9-10).

“⁴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¹⁵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¹⁶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¹⁷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¹⁸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4-18).

위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나 인간의 한계로 인해 죽는 일반인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함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있기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에 이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활에 동참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 제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⁴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¹⁵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 놓고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조건없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기쁨의 역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3~21)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러나 지금 (νῦν δὲ)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καὶ ταῦτα λαλῶ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 안에서 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도록 (ἵνα ἔχωσιν τὴν χαρὰν τὴν ἐμὴν πεπληρωμένην ἐν ἑαυτοῖς)
- (14절)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주었습니다 (ἐγὼ δέδωκα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σου)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ἐμίσησεν αὐτούς)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εἰσὶ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마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5절) 저는 지금 당신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κ ἐρωτῶ ἵνα ἄρ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당신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ἀλλ' ἵνα τηρήσ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 (16절)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시다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εἰσὶν)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7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ἀγιάσον αὐτού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당신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 (18절)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ἀπέστειλα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나 역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시다 (καὶ γὰρ ἀπέστειλα αὐτού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καὶ ὑπὲρ αὐτῶν ἐγὼ ἀγιάζω ἑμαυτόν)
그 결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ὣσιν καὶ αὐτοὶ ἡγιασμένοι ἐν ἀληθεί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도록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 땅에 남겨져 모진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3년 여만에 자신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그저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픈 순간, 누구도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순간에 ‘충만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 수난을 당하고 제자들이 뒤이어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가지밭길을 걸어야 하는 현실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거나 한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질 ‘충만한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앞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 가르치던 그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데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동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단지 엄청난 기적으로만 이해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기적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구속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녹록치 않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 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충만한 기쁨’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경험했을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그 이외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같은 ‘충만한 기쁨’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 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무관하게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¹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¹¹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¹²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

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¹³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빌 4:10-13).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에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사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힘든 환경에서도 그가 기뻐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지요. 인도하실 뿐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쁨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지금 현재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낙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알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시나요? 그러면 됐지요. 그것이 주님이 주는 기쁨이니까요.

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로고스)을 주셨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근원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6:40, 44, 54, 10:29 등 참조).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히 2:11-13).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노력해서 그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선택 기준을 놓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¹³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¹⁴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롬 9:10-14).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택한 백성에 속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행여라도 인간의 선택권과 인간의 노력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3~21)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러나 지금 (νῦν δὲ)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καὶ ταῦτα λαλῶ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 안에서 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도록 (ἵνα ἔχωσιν τὴν χαρὰν τὴν ἐμὴν πεπληρωμένην ἐν ἑαυτοῖς.)
- (14절)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주었습니다 (ἐγὼ δέδωκα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σου)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ἐμίσησεν αὐτούς.)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εἰσὶ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마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5절) 저는 지금 당신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κ ἐρωτῶ ἵνα ἄρ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당신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ἀλλ' ἵνα τηρήσ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 (16절)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시다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εἰσὶν)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7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ἀγιάσον αὐτού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당신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 (18절)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ἀπέστειλα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나 역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시다 (καὶ γὰρ ἀπέστειλα αὐτού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καὶ ὑπὲρ αὐτῶν ἐγὼ ἀγιάζω ἑμαυτόν.)
그 결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ὧσιν καὶ αὐτοὶ ἡγιασμένοι ἐν ἀληθεί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요청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가끔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믿는 족족 하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나를 얼른 데려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종말론이나 휴거도 바로 이런 생각이나 혹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역사하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반영된 생각들입니다. 종말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종말론에 대한 인간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 때이거나 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믿음조차 지키기 벅차게 될 때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서 빨리 데려가기만을 바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으로부터 데려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말은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아니지요. 악은 세력을 말합니다. 넓게는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오는 전통들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 생각하며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해친다고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결정적인 세력들이 됩니다.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⁴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⁴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은 제멋대로 살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 그들은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며 너무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함과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속에 물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종교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였으며, 신명기적 세계관에 철저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 문둥병자를 위시한 각종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의 친구됨을 자처하며 그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당연히 죄인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악’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또 다른 악은 ‘로마’로 상징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세속적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세계관은 ‘약육강식’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존재들은 당연히 강한 존재 아래서 종노릇해야 했고,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곧 특권의 상징이었던 시대였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행 16:38 참조).

이같은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정한 법이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조차 그것을 당연시 여길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로 여기기도 합니다. 번영 신학이 은혜의 복음을 몰아낸지 오래되었고, 은혜는 더 이상 값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식된지 오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악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의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번영 신학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대형화하며 세상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악’이며 그것에 동조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나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나의 물질관, 나의 세계

관, 심지어 나의 신앙관조차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교회에 도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참되고 적극적인 의미의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3~21)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러나 지금 (νῦν δὲ)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καὶ ταῦτα λαλῶ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 안에서 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도록 (ἵνα ἔχωσιν τὴν χαρὰν τὴν ἐμὴν πεπληρωμένην ἐν ἑαυτοῖς)
- (14절)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주었습니다 (ἐγὼ δέδωκα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σου)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ἐμίσησεν αὐτούς)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εἰσὶ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마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5절) 저는 지금 당신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κ ἐρωτῶ ἵνα ἄρ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당신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ἀλλ' ἵνα τηρήσ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 (16절)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시다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εἰσὶν)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7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ἀγιάσον αὐτού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당신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 (18절)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ἀπέστειλα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나 역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시다 (καὶ γὰρ ἀπέστειλα αὐτού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καὶ ὑπὲρ αὐτῶν ἐγὼ ἀγιάζω ἑμαυτόν.)
그 결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ὧσιν καὶ αὐτοὶ ἡγιασμένοι ἐν ἀληθεί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같이”에서 헬라어 ‘카도스’ (καθώς)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와 같이’라는 뜻으로 제자들의 뿌리와 자신의 뿌리가 일치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앞서 반복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거룩함’, ‘정결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진리로라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당신(하나님)의 로고스’ (ὁ λόγος ὁ σὸς)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가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추상적인 거룩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여기며, 또 어떤 이들은 정갈한 복장으로 교회에 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레 19:2 참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며 (마 5:48), 제자들이 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벧전 1:16). 사실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둘째,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0 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중략)...⁹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¹⁰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¹¹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¹²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¹³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¹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14).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짐승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그것이 능히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짐승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등장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예수님이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10 절).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요청은 이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며,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인간들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의 효력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속죄 효력이 구약 시대의 짐승들이 흘린 피의 효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란 인간 측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인간들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셋째, 그 진리는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로 번역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했지만 ‘로고스’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그자체이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존재했던 실체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진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 로고스이며,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에 의해 진리로 인도되어 진리 안에 거할 때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정말 거룩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언은 선언이고 아직도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매일 매일 정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선언은 인간의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는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의심하며 불안해 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보아야지요.

셋째, ‘나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 좀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 그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거나 빼다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것들만을 추구할 뿐 십자가는 일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불안한 나머지 뭔가 다른 것을 찾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